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2. 11. 11. 금요일 오전 09: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주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Korea Edu-care Association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세부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09:30~10:00	(30')	ㅇ 개회식 – 개회사 * **정희용**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인사말 * **김상경**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부국장 – 환영사 *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 기념촬영	
10:00~10:40		ㅇ 발제	
	(20')	1. 어린이집 급식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20')	2. 어린이집 급식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안 – **장연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10:40~11:30	(50')	ㅇ 지정토론 (좌장: **곽금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 **손성훈**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장 – **김재철**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 –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서울경기 이사장 – **임재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공급식처장 – **장태준** 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 **조재성**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서기관	
11:30~11:50	(20')	ㅇ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1:50~12:00	(10')	ㅇ 정리 및 폐회	

CONTENTS

개회사

정희용 |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04

인사말

김상경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부국장 06

축사

이중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08

주제발표

어린이집 급식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정선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13

어린이집 급식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안

장연화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43

토론

전량배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69

손성훈 |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장 73

김재철 |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 79

길청순 | 지역농업네트워크서울경기 이사장 85

임재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공급식처장 91

장태준 | 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101

조재성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서기관 105

| 개회사 |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희용입니다.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시는 정선아 숙명여대 교수님, 장연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님, 곽금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환경에 차별과 불균형이 없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이 적용되어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에서도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 희 용**

| 인사말 |

김상경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부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부국장 김상경입니다.

오늘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정희용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해 주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님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유아기의 급식은 아동 발달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식습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중 '어린이집 급식의 친환경 전환 및 공공조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게 된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제공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한분 한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부국장 **김 상 경**

| 환영사 |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중규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보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보육의 현안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유치원은 무상급식 비용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는 실정입니다. 급 · 간식비의 보육료 포함 여부에 따라 교육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활동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급 · 간식에서만 유치원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면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나아가 국가의 미래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소중한 인재들이 양성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균형 잡힌 친환경 급 · 간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이어져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중규**

Ⅰ
발 제

어린이집 급식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어린이집 급식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정선아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목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결과
5 정책 제언

Part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정 과제(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인 ‘보육시설의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어린이집의 급식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어린이집 적정 식단가 제안, 조달체계 개선 및 친환경 급식 전환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부실 급식 논란

- 어린이집 118만 명 이상의 영유아 급식 대상
  → 건강한 삶을 위한 질 높은 급식 중요
- 소규모 어린이집의 취약한 급식 운영 상황
-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표준보육료에 포함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급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
  (유치원은 무상급식 제공,
  어린이집은 무상보육비에 급식비 포함)

급식비 격차
(지역, 유형, 식재료품질)

- 지자체별 특수보육시책으로
  급식비 지원 추진결과 지역 격차 발생
  (지원 수준, 지원 방식 상이)
- 직장,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 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중에 따른 격차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요구 증가

-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식 증가

- 질 높은 급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급식 현황 파악 필요함
- 친환경 식재료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필요함
- 식재료 품질을 보장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식재료 조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함

Part 2
이론적 배경

02. 이론적 배경

어린이집 급간식비 및 식재료 조달체계

어린이집 급간식비

-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임
- 시·군·구 지방자체단체는 특수보육시책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 어린이집은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고,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체계

- 식재료 구매는 급식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 어린이집은 주로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또는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 받거나, 소매유통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음
  - 편리성, 안정성, 대체 조리원 제공 등

보육교사 급식비 및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보육교사 급식비 및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보육교사 급식비 및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곧 영유아 급식의 질로 연결됨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체계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축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운영(서울)
- 식단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의 특성 고려한 식단 구성(홍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부천)

Part 3
연구 내용 및 방법

0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과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제언
급간식비 현황	• 영유아 1인 1일 급간식비 단가 현황 • 지자체 급간식비 지원 현황 • 친환경 식재료 이용 현황 및 요구 파악	• 문헌 분석 - 어린이집 급간식비, 식재료 조달체계 • 조사지 - 급식 현황, 식품별 조리 방식, 급간식비 현황, 식재료 비중, 친환경 식재료 이용 현황 및 요구, 식재료 조달 체계 • 심층면접 - 원장 및 영양사 대상 심층 면접 - 어린이집 응답지, 6월 식단표, 6월 거래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심층면접 - 양질 급식 사례 조사 - 급식 운영 현황 촬영 • 전문가 자문회의 - 친환경 급식 전환 및 개선 방안 -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방안	•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 친환경 식재료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 •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식재료 조달방식	• 친환경 식재료 조달 방식 • 공공급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급간식 우수사례	•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사례		

03.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 다양한 유형의 23개 어린이집이 연구에 참여함
- 급간식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영유아 현원은 14명에서 247명까지 그 규모가 다양함
- 조사지를 통한 심층 면접

구분		n(%)
지역별	대도시	12(52.17)
	중소도시	9(39.13)
	농·어촌	2(8.70)
	합계	23(100)
유형별	민간	9(39.13)
	국공립	6(26.09)
	직장	3(13.04)
	가정	1(4.35)
	법인	2(8.70)
	협동	2(8.70)
	합계	23(100)
규모별	20인 미만	3(13.04)
	40~60인	10(43.48)
	70~100인	4(17.39)
	100인 이상	6(26.09)
	합계	23(100)

Part 4
연구 결과

1. 급간식 현황

1.1. 어린이집 특성별 급간식 현황

•23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1일 단가는 2,020원에서 최대 6,285원으로 편차가 큼

•어린이집의 친환경 식재료 이용 비율은 0~60%로 편차가 큼

n=23

지역		기관 유형	현원 (명)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월급간식비 총액	1일 단가 (명, 원)[2]	1일 단가 (명, 원, 교직원 포함)
서울시	강동구	국공립	37	50	3,656,820	5,079	3,975
		민간 (영아전담)	14	55	1,034,480	3,695	2,586
	마포구	협동	28	55	3,443,970	6,378	4,873
	서초구	민간 (영아전담)	24	10	1,761,360	3,670	2,752
		민간	104	10	7,282,985	3,501	2,867
		민간	33	40	2,894,603	4,386	3,146
		민간	71	20	6,767,266	4,766	4,028
		직장	38	10	7,541,998	9,924	6,285
경기도	김포시	민간	220	0	13,678,510	3,109	2,591
	의정부시	민간	247	0	12,990,158	2,630	2,388
	시흥시	국공립	127	10	10,171,005	4,004	3,346
	안양시	협동	20	60	1,171,712	2,929	2,343
부산	연제구	직장	54	10	4,972,559	4,604	3,502
	금정구	직장	85	50	7,197,150	4,234	3,301
	동구	법인	119	0	7,408,594	3,113	2,537
경북	경주	국공립	41	0	2,060,031	2,512	2,020
	영주	법인	57	20	4,988,034	4,375	3,325
충북	청주	민간	159	0	9,317,251	2,930	2,546
전북	익산	민간	26	0	1,709,460	3,287	2,514
전남	무안	국공립	39	30	4,036,268	5,175	4,485
강원도	화천	민간	69	0	4,189,120	3,126	2,554
	춘천	국공립	45	0	3,370,456	3,745	2,906
제주도		국공립	92	50	7,134,512	3,877	3,303

1. 급간식 현황

1.2. 지자체 급간식 지원 현황

•서울시의 경우 구별로 지원액이 상이함

•지역별로 어린이집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현금과 현물지원이 있음

지역		지원 현황				기관 유형 (현원)	1일 단가(1인)
		현금		현물			
		지원 내역	지원금	지원 내역	환산 지원금		
서울시	강동구	- 영아 1인 190원(시)+285(구) - 유아 1인 497원(시) - 영유아 1인 338원(위탁업체지원금) - 교사 1인 1,250원(시) - 조리사 인건비 지원 월 450,000원	(영아) 813원 (유아) 835원 (교사) 1,250원	-	-	국공립(37)	3,975
						민간(14)	2,586
	마포구	- 영아 1인/일 190원(시) + 455원(구) - 유아 1인 497원(시) + 200원(구) - 교사 1인 1,250원(시)	(영아) 645원 (유아) 697원 (교사) 1,250원	-	-	협동(28)	4,873
	서초구	- 영아 1인 190원(시) + 1,000원(구) - 유아 1인 497원(시) + 1,000원(구) - 교사 1인 1,250원(시)	(영아) 1,190원 (유아) 1,497원 (교사) 1,250원	-	-	민간(24)	2,752
						민간(104)	2,867
						민간(33)	3,146
						민간(71)	4,028
		- 영아 1인 190원(시) - 유아 1인 497원(시) - 교사 1인 1,250원(시)	(영아) 190원 (유아) 497원 (교사) 1,250원	-	-	직장(38)	6,285
경기도	김포/의정부시	- 영유아 1인 370원(시)	370원	- 월 4회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 제공 (영유아 1인/일 200원)	(영유아) 200원	민간(220)	2,591
						민간(247)	2,388
	시흥시	- 영유아 1일 370원(시)	370원	- 월 4회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 제공 (영유아 1인/일 200원) - 우유 제공[3] (영유아 1인/일 92원)	(영유아) 292원	국공립(127)	3,346

1. 급간식 현황

1.3. 지자체 급간식 지원 현황

지역		지원 현황				기관 유형 (현원)	1일 단가(1인)
		현금		현물			
		지원 내역	지원금	지원 내역	환산 지원금		
	안양시	- 영유아 1인 363원(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용) - 영아 1인 250원	(영아) 613원 (유아) 363원	- 월 4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제공 (영유아 1인/1일 200원) - 친환경 쌀 20kg 제공 (영유아 1인 172원)	(영유아) 372원	협동(20)	2,343
부산	연제구	- 영유아 1인 220원(구)	220원	-	-	직장(54)	3,502
	금정구	- 영유아 1인 1,680원(구, 친환경 쌀 구입비용)	1,680원	-	-	직장(85)	3,301
	동구	- 영유아 1인 300원	300원	-	-	법인(119)	2,537
경북	경주/영주	- 영유아 1인 500원(도) + 500원(시)	1,000원	-	-	국공립(41)	2,020
						법인(57)	3,325
충북	청주	- 영유아 1인 715원(시)	715월	-	-	민간(159)	2,546
전북	익산	- 영아 1일 250원 - 영유아 1일 49원(농수축협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용)	(영아) 299원 (유아) 49원	-	-	민간(26)	2,514
전남	무안	- 영유아 1인 486원 (Non-GMO 식재료 구입 비용) - 영유아 1인 1,020원[4]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용)	1,506원	-	-	국공립(39)	4,485
강원도	화천/춘천	- 영유아 1인 500원	500원	-	-	민간(69)	2,554
						국공립(45)	2,906
제주도		-	-	- 친환경 쌀 일부와 채소 납품 액의 70% 지원 - 잡곡 및 농산물 납품 액 30% 지원 (영유아 1인 790원)	(영유아) 790원	국공립(92)	3,303

1. 급간식 현황

1.4. 급간식 식단 및 조리 방식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식단 제공처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비율이 가장 높음

• 알려지가 있는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경우 개별식품을 제공하고 있음.

n=23

구분	응답(%)
어린이급간식관리센터	12(52.17)
영양사	9(39.13)
기타	2(8.70)
합계	23(100)

기타: 00 두레 생협 영양사(공동육아 어린이집)
재단 소속 영양사

1. 급간식 현황

1.5. 급간식 조리 방식

•직접 조리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규모가 적을수록 직접 조리 비율이 높음

단위: %, n=23

구분		직접 조리	완제품	반 조리	전체
전체 평균		73.52	22.04	4.48	100
지역별	대도시	74.00	21.50	4.58	
	중소도시	71.11	24.67	4.33	
	농·어촌	81.50	13.50	4.50	
유형별	국공립	71.17	25.50	3.67	
	민간	71.00	23.67	5.22	
	가정	91.00	7.00	1.00	
	법인	60.00	28.00	12.00	
	직장	82.00	16.67	1.67	
	협동	84.00	14.00	2.00	
규모별	20인 미만	88.50	10.50	0.50	
	40~60인	74.09	21.73	4.36	
	70~ 100인	73.25	23.75	2.75	
	100인 이상	67.67	25.33	7.17	

*완제품: 떡, 과일, 빵, 주스, 요구르트, 치즈 등

2. 급간식 단가 및 식재료비중

2.1. 어린이집 특성별 급간식 단가 및 식재료 비중

•22개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급간식 단가 평균은 3,082원

• 식재료별 비중은 가공식품이 전체 1일 단가의 1,007원 (33%)로 가장 높음

단위: 원, ()=%
n=22

구분	1일 단가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	가공식품	양념류	기름류
전체 평균	3,082	150	57	412	316	723	208	54	1,007	107	68
	(100)	(5)	(2)	(13)	(10)	(23)	(7)	(2)	(33)	(3)	(2)

2.2. 어린이집 지역별 급간식 단가 및 식재료 비중

•어린이집 지역별 영유아 1인 1일 급간식 단가는 농어촌이 3,520원이며, 대도시 3,309원, 중소도시 2,708원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도 농어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음

단위: 원, ()=%
n=22

구분		1일 단가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	가공식품	양념류	기름류
지역	대도시	3,309 (100)	147 (4)	59 (2)	455 (14)	351 (11)	799 (24)	241 (7)	58 (2)	1,032 (31)	102 (3)	64 (2)
	중소도시	2,708 (100)	135 (5)	55 (2)	358 (13)	237 (9)	590 (22)	178 (7)	63 (2)	1,022 (38)	88 (3)	31 (1)
	농어촌	3,520 (100)	232 (7)	50 (1)	420 (12)	485 (14)	900 (26)	161 (5)	0 (0)	797 (23)	223 (6)	253 (7)

2.3. 어린이집 규모별 급간식 단가 및 식재료 비중

• 40~ 6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단가가 가장 높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단가가 가장 낮음.

•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음.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 순으로 비중이 높음. 수산물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원, ()=%
n=22

구분		1일 단가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	가공식품	양념류	기름류
규모	20인 미만	2,465 (100)	170 (7)	107 (4)	309 (13)	175 (7)	811 (33)	173 (7)	25 (1)	768 (31)	108 (4)	6 (0)
	40~60인	3,342 (100)	156 (5)	63 (2)	436 (13)	360 (11)	742 (22)	234 (7)	56 (2)	1,061 (32)	133 (4)	102 (3)
	70~ 100인	3,297 (100)	127 (4)	70 (2)	511 (15)	452 (14)	772 (23)	242 (7)	21 (1)	956 (29)	89 (3)	73 (2)
	100인 이상	2,713 (100)	148 (5)	20 (1)	342 (13)	202 (7)	627 (23)	153 (6)	85 (3)	1,031 (38)	76 (3)	28 (1)

2. 4. 어린이집 유형별 급간식 단가 및 식재료 비중

•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급간식 단가가 가장 낮음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 수산물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공식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협동과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식재료간 비중의 편차가 크지 않음

단위: 원, ()=%
n=22

구분		1일 단가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	가공식품	양념류	기름류	기타
유형	협동	3,563 (100)	150 (4)	131 (4)	580 (16)	569 (16)	711 (20)	237 (7)	25 (1)	895 (25)	363 (10)	91 (3)	1 (0)
	직장	3,402 (100)	233 (7)	52 (2)	592 (17)	437 (13)	693 (20)	281 (8)	120 (4)	794 (23)	105 (3)	97 (3)	0 (0)
	국공립	3,339 (100)	166 (5)	59 (2)	434 (13)	287 (9)	743 (22)	217 (6)	36 (1)	1,083 (32)	165 (5)	159 (5)	0 (0)
	법인	2,931 (100)	143 (5)	34 (1)	373 (13)	238 (8)	687 (23)	207 (7)	88 (3)	1,056 (36)	61 (2)	46 (2)	0 (0)
	민간	2,822 (100)	110 (4)	51 (2)	350 (12)	304 (11)	693 (25)	189 (7)	57 (2)	1,027 (36)	35 (1)	6 (0)	0 (0)
	가정	2,586 (100)	264 (10)	0 (0)	224 (9)	13 (1)	1,016 (39)	128 (5)	0 (0)	923 (36)	6 (0)	12 (0)	0 (0)

2.5.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별 1일 급간식 단가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높아질수록 1일 급간식 단가는 점차 높아짐

단위: 원, ()=%
n=22

구분		1일 단가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	가공식품	양념류	기름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0%	2,727 (100)	167 (6)	32 (1)	326 (12)	276 (10)	689 (25)	159 (6)	48 (2)	848 (31)	89 (3)	92 (3)
	10~20%	3,303 (100)	141 (4)	48 (1)	464 (14)	309 (9)	694 (21)	261 (8)	83 (3)	1,219 (37)	66 (2)	20 (1)
	30~40%	3,823 (100)	128 (3)	138 (4)	539 (14)	497 (13)	805 (21)	258 (7)	68 (2)	985 (26)	153 (4)	246 (6)
	50%~	3,382 (100)	159 (5)	83 (2)	475 (14)	389 (12)	798 (24)	222 (7)	22 (1)	1,023 (20)	194 (6)	91 (3)

2.6. 어린이집 급간식 식재료 품질

쌀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일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응답 수, ( )=%
n=23, 중복응답

종류	국내산		수입산	
	일반*	친환경	일반	친환경
쌀	11(47.83)	10(43.38)	0(0)	0(0)
잡곡류	11(47.83)	8(34.78)	1(4.35)	0(0)
채소류	18(78.26)	9(39.13)	0(0)	0(0)
과일류	21(91.30)	5(21.74)	7(30.43)	0(0)
축산물	20(86.96)	10(43.38)	2(8.70)	0(0)
수산물	21(91.30)	0(0)	7(30.43)	0(0)
김치	11(47.83)	2(8.70)	1(4.35)	0(0)
가공식품	22(95.65)	6(26.09)	11(47.83)	1(4.35)
양념류	15(65.22)	3(13.04)	9(39.13)	1(4.35)
기름류	16(69.57)	1(4.35)	10(43.38)	0(0)

* 친환경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 포함(동물복지, 무항생제 등)

2.7. 식재료별 구매 결정 요인

'품질/신선도'와 '위생/안전'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응답 수, ( )=%
n=23, 중복응답

	가격	맛	영양	신선도	위생/안전	이용편의성	인증여부	생산지/원산지	납품(포장) 단위
쌀	3(13.04)	7(30.43)	5(21.74)	17(73.91)	9(39.13)	7(30.43)	9(39.13)	10(43.48)	3(13.04)
잡곡류	4(17.39)	4(17.39)	3(13.04)	14(60.87)	10(43.48)	5(21.74)	6(26.09)	10(43.48)	1(4.35)
채소류	2(8.70)	4(17.39)	3(13.04)	19(82.61)	4(60.87)	12(52.17)	4(17.39)	6(26.09)	2(8.70)
과일류	3(13.04)	9(39.13)	5(21.74)	19(82.61)	11(47.83)	10(43.48)	4(17.39)	7(30.43)	2(8.70)
축산물	4(17.39)	5(21.74)	6(26.09)	19(82.61)	15(65.22)	9(39.13)	7(30.43)	11(47.83)	2(8.70)
수산물	2(8.70)	5(21.74)	3(13.04)	18(78.26)	4(60.87)	9(39.13)	3(13.04)	10(43.48)	2(8.70)
김치류	2(8.70)	8(34.78)	5(21.74)	13(56.52)	11(47.83)	8(34.78)	2(8.70)	4(17.39)	0(0)
가공식품	3(13.04)	8(34.78)	4(17.39)	10(43.48)	15(65.22)	8(34.78)	4(17.39)	9(39.13)	3(13.04)
양념류	4(17.39)	7(30.43)	3(13.04)	4(60.87)	15(65.22)	8(34.78)	4(17.39)	8(34.78)	4(17.39)
기름류	4(17.39)	5(21.74)	3(13.04)	13(56.52)	12(52.17)	8(34.78)	5(21.74)	7(30.43)	3(13.04)

자료: 황윤재, 홍연아, 박시현, 최준영(2019). 공공급식 식재료 실태와 개선과제에서 구분 기준 참조

2.8. 식재료별 품질 및 위생 관련 규정 활용

'정부/지자체 등 제공 규정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n=23, 중복응답

구분	응답(%)
기관 자체 규정(기준,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10]	9(39.13)
정부/지자체 등 제공 규정(기준, 지침)을 활용	14(60.87)
특별히 활용하고 있는 규정(기준, 지침)이 없음	5(21.74)

2.9.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확보 확인 사항

'유통기한' 확인이 가장 많음

n=23, 중복응답

구분	응답(%)
유통기한	22(95.65)
원산지	21(91.20)
공급업체 안전성 검사 여부	20(86.96)
식재료 인증서	20(86.96)
중량/포장 상태	20(86.96)
외관 확인	20(86.96)

3.1. 친환경 식재료 이용에 따른 지원

총 23개의 어린이집 중 10개 어린이집이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받고 있음

n=23

구분	응답(%)
지원	10(43.48)
미지원	13(56.52)
합계	23(100)

3.2. 친환경 식재료 이용에 따른 지원

8개 어린이집은 현금으로, 2개 어린이집은 현물로 지원받고 있음

n=10

구분	응답(%)
현금	8(80)
현물	2(20)
합계	10(10)

3.3. 친환경 식재료 조달 방식

7개 어린이집이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50.00%)', 6개 어린이집이 생협(42.86%)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n=14, 중복응답

조달방식	응답(%)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7(50.00)
생협(icoop, 한살림, 두레, 오아시스, 초록마을, 행복중심 등)	6(42.86)
기타(예: 생태유아공동체)	3(21.43)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2(14.29)
소매 유통업체	2(14.29)
공공급간식지원센터	2(14.29)
농수축협	2(14.29)
농가/생산자 직거래	1(7.14)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1(7.14)
공동구매	1(7.14)

3.4. 친환경 식재료 이용 만족도

친환경 식재료 이용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n=14

구분	응답(%)
1점	1(7.14)
2점	1(7.14)
3점	2(14.29)
4점	5(35.71)
5점	5(35.71)
총계	100.00

3.5. 친환경 식자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

11개 어린이집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에 응답을 많이함

n=23, 중복응답

이유	응답(%)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11(47.83)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7(30.43)
품목이 다양하지 않음	7(30.43)
친환경 인증을 신뢰하기 어려움	4(17.39)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음	4(17.39)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찾기 어려움	1(4.35)
가격이 불안정함	1(4.35)
친환경 식재료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0(0.00)

3.6. 친환경 식재료 이용 확대 의사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친환경 식재료 확대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n=7

구분	응답(%)
있음	6(85.71)
없음	1(14.29)
합계	7(100)

미응답: 2개

3.7. 친환경 식재료 이용 요구 파악

친환경 식재료로 전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쌀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음.

응답(%), 중복응답

종류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쌀	15(65.22)	0(0)	1(4.35)	2(8.70)	1(4.35)	0(0)	1(4.35)	0(0)	0(0)	0(0)
잡곡류	0(0)	5(21.74)	2(8.70)	1(4.35)	2(8.70)	4(17.39)	3(13.04)	0(0)	1(4.35)	2(8.70)
채소류	2(8.70)	8(34.78)	4(17.39)	3(13.04)	2(8.70)	0(0)	0(0)	0(0)	0(0)	1(4.35)
과일류	1(4.35)	2(8.70)	9(39.13)	5(21.74)	1(4.35)	2(8.70)	0(0)	0(0)	0(0)	0(0)
축산물	2(8.70)	3(13.04)	3(13.04)	2(8.70)	6(26.09)	3(13.04)	1(4.35)	0(0)	0(0)	0(0)
수산물	0(0)	1(4.35)	1(4.35)	1(4.35)	5(21.74)	5(21.74)	3(13.04)	1(4.35)	1(4.35)	1(4.35)
김치류	0(0)	2(8.70)	1(4.35)	3(13.04)	2(8.70)	3(13.04)	2(8.70)	5(21.74)	1(4.35)	2(8.70)
가공식품	0(0)	0(0)	0(0)	0(0)	1(4.35)	2(8.70)	4(17.39)	4(17.39)	5(21.74)	5(21.74)
양념류	0(0)	0(0)	0(0)	1(4.35)	1(4.35)	0(0)	4(17.39)	5(21.74)	8(34.78)	0(0)
기름류	0(0)	0(0)	0(0)	1(4.35)	0(0)	1(4.35)	1(4.35)	4(17.39)	4(17.39)	9(39.13)

3.8. 친환경 식재료 비용 부담 주체

어린이집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는 정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음.

n=23, 중복응답

부담 주체	응답(%)
정부	14(60.87)
지자체(시군구)	11(47.83)
어린이집	5(21.74)
기타	1(4.35)
부모	0(0.00)

기타: 법인 지원

3. 친환경 식재료 이용 현황 및 요구 파악

3.9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적합한 업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적합한 업체로 생협,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순으로 응답함

n=23, 중복응답

구분	응답(%)
생협(icoop, 한살림, 두레, 오아시스, 초록마을, 행복중심 등)	14(60.87)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7(30.43)
농수축협	7(30.43)
공공급간식지원센터	6(26.09)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2(8.70)
기타	1(4.35)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1(4.35)
농가/생산자 직거래	0(0.00)
소매 유통업체	0(0.00)
공동구매	0(0.00)

기타: 수도권 생협

3. 친환경 식재료 이용 현황 및 요구 파악

3.10 친환경 식재료 지원 방식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14개 어린이집이 '현금' 에 가장 많이 응답함.

n=23

구분	응답(%)
현금	14(60.87)
현물	5(21.74)
현물과 현금 동시 지원	2(8.70)
기타	1(4.35)
합계	23(100)

3. 친환경 식재료 이용 현황 및 요구 파악

3.11.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시 친환경 식재료 비중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받을 경우 적정 친환경 식재료 이용 비중은 50% 이상으로 응답함.

n=21

전체 식재료의 친환경 비중	응답(%)
~30	0(0.00)
30~40	3(14.29)
40~50	0(0.00)
50~	18(85.71)
합계	21(100.00)

미응답 2기관

4. 급간식 식재료 조달 체계 현황 및 요구

4.1. 식재료 조달 방식 현황

모든 식재료에서 '대기업 식재료 공급 업체'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

단위: 응답 수, ()=%
n=23, 중복응답

조달방식	식재료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가공식품	양념류	기름류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7(30.43)	9(39.13)	9(39.13)	8(34.78)	9(39.13)	9(39.13)	8(34.78)	11(47.83)	11(47.83)	11(47.83)
생협	4(17.39)	5(21.74)	5(21.74)	4(17.39)	3(13.04)	3(13.04)	4(17.39)	5(21.74)	5(21.74)	4(17.39)
소매 유통업체	2(8.70)	3(13.04)	5(21.74)	6(26.09)	4(17.39)	2(8.70)	1(4.35)	5(21.74)	2(8.70)	2(8.70)
농수축협	2(8.70)	2(8.70)	3(13.04)	3(13.04)	1(4.35)	2(8.70)	0(0)	2(8.70)	2(8.70)	2(8.70)
공공급간식지원센터	2(8.70)	1(4.35)	2(8.70)	3(13.04)	2(8.70)	2(8.70)	2(8.70)	2(8.70)	2(8.70)	1(4.35)
농가/생산자 직거래	2(8.70)	1(4.35)	1(4.35)	1(4.35)	0(0)	0(0)	0(0)	0(0)	0(0)	0(0)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1(4.35)	0(0)	0(0)	0(0)	0(0)	0(0)	1(4.35)	0(0)	0(0)	0(0)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0(0)	0(0)	1(4.35)	0(0)	1(4.35)	1(4.35)	0(0)	0(0)	1(4.35)	1(4.35)
공동구매	0(0)	0(0)	0(0)	0(0)	0(0)	1(4.35)	0(0)	1(4.35)	0(0)	0(0)
직접 담금	0(0)	0(0)	0(0)	0(0)	0(0)	0(0)	6(26.09)	0(0)	0(0)	0(0)
기타	1(4.35)	2(8.70)	2(8.70)	2(8.70)	2(8.70)	2(8.70)	0(0)	2(8.70)	2(8.70)	1(4.35)

4. 급간식 식재료 조달 체계 현황 및 요구

4.2. 식재료 조달방식 선정 이유

조달방식	만족사항	불만족 사항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 안전성 • 배송 정확 • 배달 • (구입)편리 • 식품위생법 준수 • 사고시 즉각 응대 • 법제도에 어긋남이 없음 • 온라인 구매라 편하고 질이 어느 정도 유지됨 • 대체 조리인력 지원	• 비쌈
생협(icoop, 한살림, 두레, 오아시스, 초록마을, 행복중심 등)	• 안전성, 신뢰도	• 포장단위(소포장)
소매 유통업체	• 발주 누락된 경우 지역에서 조달 • 선 주문 없이도 즉시 구입가능/구입편리	• 제일 비쌈
농수축협	• 시 보조금 지원(할인) • 좋은 품질 유지 가능	
공공급간식지원센터	• 규칙적 배송 • 급간식비 절약 • 좋은 품질	• 제품이 다양하지 않음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 배달 편리	•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공동구매	• 지정업체	

4. 급간식 식재료 조달 체계 현황 및 요구

4.2. 공공급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공급식지원센터 필요한 이유
- 어려움이나 예상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언 등을 구할 수 있음
- 배송 및 하자 등에 관해 책임감 있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임
- 어린이집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직거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신선하게 잘 배송해 줌
-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
- 가격 안정, 식자재가 믿을 수 있음
- 학교급식과 같이 친환경급식 재료업체를 통해 구매를 원하기 때문임
- 식재료의 단가와 수급 안정성임 필요함
- 전반적인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함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
- 공공급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현행 체계로도 유지가 가능함
- 각 원의 사정과 형편이 달라 원의 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4. 급간식 식재료 조달 체계 현황 및 요구

4.3. 공공급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 급간식 식재료 조달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n=19

구분	응답(%)
필요하다	12(63.16)
필요하지 않다	5(26.32)
기타	2(10.53)
합계	19(100)

미응답: 4개

Part 5
정책 제언

05. 정책 제언

1.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 향상과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이 필요함
- 서울시 기준, 1인 당 1일 1,250원/월 25,000원으로 교사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예산이 필요

보육교사 급식비
보육교사 수 212,816명* X 급식비 1일 1,250원 X 12개월 X 20일(월) = 63,844,800,000원
필요 예산 63,844,800,000원

- 보건복지부 2021 보육통계 기준/보육교사 236,085명 중 방과후보육교사(235명), 24시간보육교사(147명), 야간 연장 교사(월급여형 4,598명, 단시간형 126명), 연장보육반전담교사(18,163명)을 제외한 급간식 제공이 필요한 보육교사 수

* 현재 한 지자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사 급량비가 월 140,000원임.

05. 정책 제언

3. 조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의 영양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리원 인건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어린이집이 대기업 식재료 조달체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공급과 이용 편리성도 있으나, '조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음.
- 어린이집은 대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조리원의 급작스러운 결근 등은 어린이집 급간식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 조리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조리원의 수가 부족하여 대체 조리사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현재 어린이집의 식재료 중 가공식품 비중이 높은 이유도 조리원의 부족 현상의 결과일 수 있음.

05. 정책 제언

2. 친환경 쌀 전환

• 어린이집 급간식의 친환경 지원 요구가 높음
- 어린이집 급간식 식재료 50% 이상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음
- 특히 식재료 중 친환경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식재료는 쌀로 나타남.

•어린이집 급간식 식재료 중 쌀을 우선으로 친환경 전환 시 필요 예산은 다음과 같음
- 1인당 1식 쌀 소비량은 영아 38.5g, 유아 55g임
- 친환경 쌀 1g 당 약 35원(농협 기준)이므로 영아 1인당 5원 인상됨
- 친환경 쌀 지원 시 필요 예산은 다음과 같음.

영아	유아
영아 1인 38.5gX5(원)X 영아 수 674,077명X20(일)X12개월 = 31,142,357,400원	유아 1인 50gX5(원)X 유아 수 510,639명X20(일)X12(개월) =30,684,340,000143원
총 61,780,697,400원	

05. 정책 제언

3. 조리원 인건비 지원

- 80인 이하 어린이집도 2인 조리원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며 영유아 80인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2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80인 이하 어린이집 경우 영유아는 80인 이하이나 보육교직원의 수를 포함한다면 80에서 100인이상의 어린이집 규모에 해당함.
-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당 월 450,000원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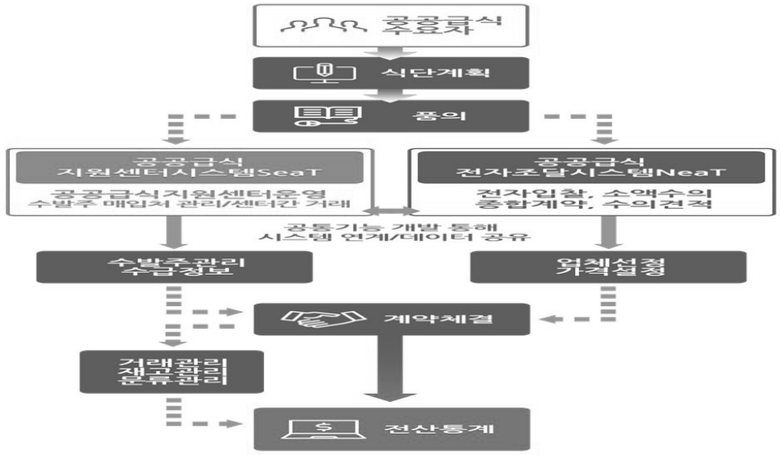
05. 정책 제언

3.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 필요 예산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강동구 기준으로 1개 어린이집당 월 450,000원을 지원한다면 1일 (약)3시간 근무하는 조리원 1인을 더 채용할 수 있음

조리원 인건비
모든 어린이집 수: 33,246개 450,000원 X 12개월 X 33,246개
필요 예산 179,528,400,000원

○ 사례 1. 농림축산식품부 aT 공공급식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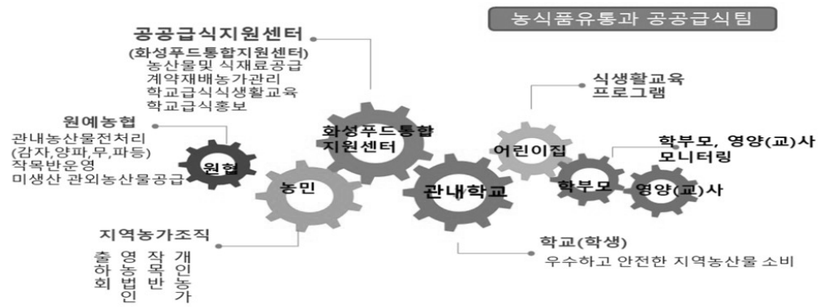
05. 정책 제언

4. 어린이집 식재료 조달 체계 구축 필요

• 어린이집은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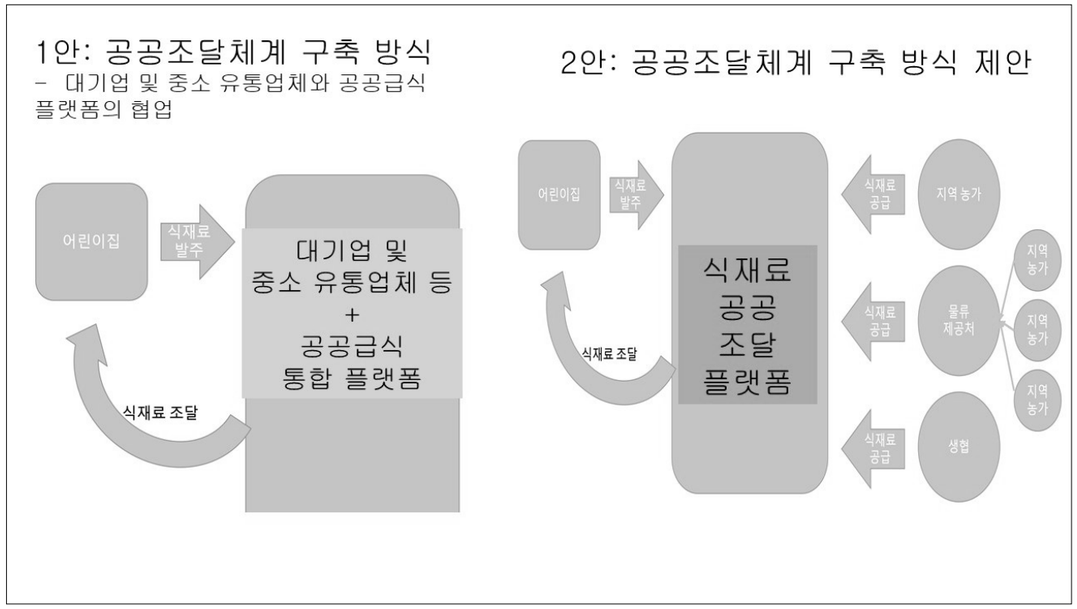
-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한다면, 어린이집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사례 2. **화성시 공공급식 시스템**



○ 사례 3. **홍성, 지역주민 주도의 친환경 급식 운영**

- 홍성에서는 친환경 농민들과의 연계망이 탄탄한 풀무생협과 지역주민들의 공조 하에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실시되고 있음
- 홍성 어린이집 급식의 특기할 점 중 하나는 '식단위원회' 구성으로써, 풀무생협 생산자 및 실무자, 급식 참여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영양사 등이 참여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 되어야 한다

Ⅱ

발 제

어린이집 급식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안

장연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어린이집 급식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안

Ⅰ. 들어가며

'의(衣)·식(食)·주(住)'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인 옷, 음식, 집을 뜻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만약 의식주가 없다면 인간은 삶을 살아갈 수 없으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꼭 필요하다. 의식주라는 말에서 이 세가지 개념은 대등하게 묶이지만 개인과 소속된 국가의 가치관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를 수 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소비생활 분야는 '식(食)', '금(金)융', '의(衣)'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발표에서만 해도 '식(食)', '의(衣)', '금(金)융'이었으나, 2년 만에 또다시 순위가 바뀌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의식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가지, 바로 '식(食)'이다. 식품·외식 분야의 중요도 비중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전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食)'을 우리의 영유아들은 얼마나 양질로 섭취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 영유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어린이집 급·간식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Ⅱ. 영유아기 급·간식의 중요성

우리가 영유아기 보육·교육의 질을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급·간식의 질에 관한 것이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 식사를 섭취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하루 영양섭취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질의 급·간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배정숙·이경은, 2019).

영아기는 발달적으로 신체적·심리적 성장과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생애 초기의 발달적 경향성이 영아기 이후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기는 일생에서 신체 기관과 두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습관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이 시기의 부적절한 영양 섭취는 성장장애와 빈혈, 그리고 현재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소아비만을 발생시킨다(홍완수 외, 2021).

성장기 양질의 식사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수용 정도를 경험하게 되며, 이 시기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간식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며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곽동경 외, 2019).

영유아기의 영양 섭취량과 섭취 행태는 아동기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영아는 치아와 근육의 미발달로 유아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유치원의 유아도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으므로 하루 영양 섭취량을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식사와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가 필요하다(도남희, 2018).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기관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기에 맞는 균형 잡힌 급·간식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의 소화능력과 기호를 고려한 식단을 구성하여 영유아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을 통해 급·간식이 제공되어야 한다(교육부, 2017).

이처럼 영유아기 급·간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에 차이가 있어 급·간식 운영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보건복지부와 유치원의 교육부는 각 부처 관련 법규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 기준과 강조점에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영아와 유아의 급·간식 제공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여 비슷한 연령대의 영유아가 급·간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 제시와 지원이 필요하다(도남희, 2018)

Ⅲ.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운영 현황

1.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현황

2021년 보육·교육통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수는 33,246개소이며, 1,184,716명의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은 8,660개소, 582,572명이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16.4%,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 합하여 5.8%, 직장·협동어린이집이 합하여 4.2%를 제외하고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대다수이며, 보육아동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아동이 전체 보육 아동의 62.7%이다.

〈표 Ⅲ-1-1〉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단위: 개소, 명, %)

급식인원수 (원아수+ 급식교직원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공립	사립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수	개소(A)		33,246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비중)		100.0	16.4	3.9	1.9	31.9	41.8	0.4	3.8
아동수	정원(B)		1,557,496	326,210	113,294	46,084	715,671	259,901	4,636	91,700
	(비중)		100.0	20.9	7.3	3.0	46.0	16.7	0.3	5.9
	현원 (C)	계	1,184,716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남	613,695	139,664	38,046	16,150	277,125	107,330	1,873	33,507
		녀	571,021	129,303	34,039	14,848	258,303	101,512	1,592	31,424
	(비중)		100.0	22.7	6.1	2.6	45.2	17.6	0.3	5.5
	이용률		76.1	82.5	63.6	67.3	74.8	80.4	74.7	70.8
보육 교직원 수	인원 (D)	계	321,116	67,191	17,673	7,351	123,655	83,758	1,009	20,479
		남	11,261	1,305	1,754	579	6,511	880	22	210
		녀	309,855	65,886	15,919	6,772	117,144	82,878	987	20,269
	(비중)		100.0	20.9	5.5	2.3	38.5	26.1	0.3	6.4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C/A)			35.6	49.5	56.1	48.4	50.5	15.0	24.4	52.0
보육교직원1인당 아동수(C/D)			3.7	4.0	4.1	4.2	4.3	2.5	3.4	3.2

출처: 보건복지부(2021a). 2021 보육통계. 2021년 12월 기준.

한편 유치원은 유형별로 국·공립유치원이 약 58%로 사립보다 많으며, 유치원 이용 아동은 사립유치원이 전체 아동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2〉 설립주체별 유치원 이용 아동 수

(단위: 개소, 명, %)

유형	합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수(비율)	8,660(100)	3(0.04)	5,058(58.4)	3,599(41.6)
아동 수(비율)	582,572(100)	264(0.05)	177,097(30.4)	405,211(69.6)

출처: 교육부(2022). 2021 교육통계연보. 2021년 4월 기준.

정원 규모별로 보면 어린이집은 100명 미만이 약 92%이고 20명 이하도 약 44%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20명 이하 ~ 100명 미만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20명이하는 거의 볼 수 없다. 반면 협동어린이집은 20명 이하 ~ 50명 미만의 소규모가 대부분이고,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가 100%이다.

〈표 Ⅲ-1-3〉 정원 규모 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20명이하	21~49명	50~99명	100명이상
소 계	33,246(100)	14,648(44.1)	8,308(25.0)	7,699(23.2)	2,591(7.8)
국공립	5,437(100)	554(10.2)	1,910(35.1)	2,595(47.7)	378(7.0)
사회복지법인	1,285(100)	3(0.2)	249(19.4)	723(56.3)	310(24.1)
법인 • 단체등	640(100)	9(1.4)	224(35.0)	320(50.0)	87(13.6)
민간	10,603(100)	8(0.1)	5,387(50.8)	3,609(34.0)	1,599(15.1)
가정	13,891(100)	13,891(100)	0(0)	0(0)	0(0)
협동	142(100)	72(50.7)	58(40.8)	9(6.3)	3(2.1)
직장	1,248(100)	111(8.9)	480(38.5)	443(35.5)	214(17.1)

출처: 보건복지부(2021a). 2021 보육통계. 2021년 12월 기준.

한편, 유치원은 100명 미만이 약 74% 정도이며, 이 중 20명 이하는 약 34% 정도에 이른다. 국립유치원은 50명 이상만 있고, 공립은 20명 이하가 절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50명 이상이 약 82% 정도이다.

〈표 Ⅲ-1-4〉 정원 규모 별 유치원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20명이하	21~49명	50~99명	100명이상
소 계	8,660(100)	2,948(34.0)	1,586(18.3)	1,844(21.3)	2,282(26.4)
국립	3(100)	0(0)	0(0)	1(33.3)	2(66.7)
공립	5,058(100)	2,699(53.3)	1,174(23.2)	760(15.0)	428(8.5)
사립	3,599(100)	249(6.9)	412(11.4)	1,084(30.1)	1,854(51.5)

출처: 교육부(2022). 2021 교육통계연보. 2021년 4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 중 영아(0~2세)는 약 57%, 나머지 43%가 유아로,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유아를 위한 급·간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영아는 0.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유아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3~5세 유아의 식단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표 Ⅲ-1-5〉 연령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이상
어린이집 계	1,184,716 (100)	119,621 (10.1)	252,542 (21.3)	301,914 (25.5)	190,393 (16.1)	161,020 (13.6)	154,363 (13.0)	4,863 (0.4)
국공립	268,967 (100)	16,924 (6.3)	50,600 (18.8)	65,259 (24.3)	50,339 (18.7)	43,182 (16.1)	41,643 (15.5)	1,020 (0.4)
사회복지법인	72,085 (100)	3,300 (4.6)	10,259 (14.2)	15,313 (21.2)	14,972 (20.8)	13,532 (18.8)	12,865 (17.8)	1,844 (2.6)
법인·단체등	30,998 (100)	1,251 (4.0)	4,017 (13.0)	6,171 (19.9)	6,562 (21.2)	6,188 (20.0)	6,115 (19.7)	694 (2.2)
민간	535,428 (100)	36,657 (6.8)	94,521 (17.7)	131,567 (24.6)	103,331 (19.3)	85,844 (16.0)	82,354 (15.4)	1,154 (0.2)
가정	208,842 (100)	58,751 (28.1)	80,327 (38.5)	68,293 (32.7)	856 (0.4)	327 (0.2)	260 (0.1)	28 (0.01)
협동	3,465 (100)	86 (2.5)	433 (12.5)	723 (20.9)	751 (21.7)	711 (20.5)	736 (21.2)	25 (0.7)
직장	64,931 (100)	2,652 (4.1)	12,385 (19.1)	14,588 (22.5)	13,582 (20.9)	11,236 (17.3)	10,390 (16.0)	98 (0.2)
유치원 계	582,575 (100)	※ 3세 이하		62 (0.01)	133,195 (22.9)	207,528 (35.6)	241,489 (41.5)	298 (0.05)
국립	264 (100)	0 (0)			58 (22.0)	99 (37.5)	107 (40.5)	0 (0)
공립	177,097 (100)	32 (0.01)			32,234 (18.2)	59,736 (33.7)	84,939 (48.0)	156 (0.1)
사립	405,211 (100)	30 (0.01)			100,903 (24.9)	147,693 (36.4)	156,443 (38.6)	142 (0.04)

출처: 보건복지부(2021a). 2021 보육통계. 2021년 12월 기준.
교육부(2022). 2021 교육통계연보. 2021년 4월 기준.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칙

1) 어린이집[1)]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함.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

-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다. 급식 운영 원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함.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 동의를 거치고 이를 증빙(보호자가 상기 안내에 동의하여 회신한 알림장, 키즈노트 등)시에는 외부음식 제공이 가능함.

*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급식(외부 음식)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리 고지·안내하여야 함.

1) 어린이집 급 · 간식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과 보건복지부 「2022 보육사업 안내」 에 기초하여 정리함.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해야 함.

*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및 서면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원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해야 함.

–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공개방식, 공개형태, 공개주기 등)에 따라 급·간식 내용을 공개해야 함.

–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식약처에서 권고한 품질 관리 기준을 참고.

라.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3조)

–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함.

–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두는 영양사 포함)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면허소지자이어야 함.

2) 유치원[2)]

가. 「학교급식법」 개정 및 시행 (개정 2022. 6. 28. / 시행 2022. 6. 29.)

–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원아 수 50인 이상 유치원은 급식의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처럼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음.

2) '유치원 급 · 간식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2022년 유치원급식 기본계획(안)」 에 기초하여 정리함.

–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급식 운영체계와 관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시설·위생안전·영양관리 기준,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여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50명 미만의 유치원도 관할 교육청과 함께 식약처 소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실태조사 및 순회 방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

– 1회 50명 이상 (유아 및 교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구·군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급식 개시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변경(운영자·소재지 변경 등) 및 운영중단 시 신고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급식 운영 원칙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1조)

– 유치원 급식의 운영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공립) 또는 자문(사립)을 거쳐 유치원장이 결정하여야 함.

– 급식운영 방식은 직영이 원칙이나, 위탁급식도 가능함.

* 급식시설 개·보수 유치원, 급식시설 미설치 유치원, 급식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급식중단 유치원의 경우 외부업체에서 조리된 형태의 운반급식이 가능,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도 가능.

라. 영양교사 및 조리사 배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단독 배치하여야 하며,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단독 또는 관할구역 내 2개의 유치원까지 공동 배치할 수 있음.

– 유치원(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함.

Ⅳ.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지원 현황

1.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 산정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로서 정부 지원 보육료 내역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 급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재료비(1회), 간식 재료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에 따르면 급·간식비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며,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급·간식비는 조리원(조리사)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 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2).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표 Ⅳ-1-1〉 2019 표준보육비용 중 급 · 간식비 산출 방법

ㅇ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을 고려하여 사계절 연령별 표준 식단을 작성

⇩

ㅇ 식단에 필요한 식재료 리스트와 필요 분량을 작성

⇩

ㅇ 식재료의 가격 단가를 조사하여 단위 가격을 산출

⇩

ㅇ 아동 당 필요 분량에 곱하여 아동 당 1일 식재료 단가를 산출

⇩

ㅇ 한 달 식단표를 기준으로 월 급·간식비를 산출

급간식비는 아동 연령에 따라 일반 마트 단가를 기준으로 한 1안과 마트 단가와 함께 유기농 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2안으로 산출하였다.

〈표 Ⅳ-1-2〉 아동 1인당 월 급식비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1안	33,200	45,100	45,100	64,000	64,000
2안	44,700	61,900	61,900	88,000	88,000

출처: 박진아 외(2019).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의 급식비(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다[3] 유치원은 급식비 재원 부담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단가를 산정하여 공통의 급식비 산정방법을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본 고에서는 「박상은(2021). 유치원 적정 급식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 A교육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예시로 살펴보았다.

박상은(2021)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급식비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표준식단 산정가는 2,30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Ⅳ-1-3〉 유치원 급식비 분석 방법

ㅇ 관 내 유치원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분석

⇩

ㅇ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1주(5일)분 식단 계획 작성

⇩

ㅇ 일반식품단가(최고가, 최저가, 친환경식품단가) 구분산출

⇩

ㅇ 공동시장조사 식재료 단가 적용 후 평균 급식단가 산출

⇩

ㅇ 소비자물가상승분(농수산축산물지수) 반영하여 선정

3)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2022년 전국 유치원 식품비 단가는 아래의 표와 같고, 지역에 따라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인상된 식품비 단가도 알 수 있다.

〈표 Ⅳ-1-4〉 2022년 전국 유치원 식품비 단가 인상 현황

지역	2022년 식품비 단가 인상 현황				비고
	1학기 단가(원)	2학기 단가(원)			(식품비 외 운영비 추가 인상액이 있는 경우, 단위:원)
	계 (A)	2학기 식품비 인상액(원) (B)	1학기 대비 2학기 식품비 인상률(%) (C=B/A×100)	계 (D=A+B)	
서울	2,990	0	–	2,990	0
부산	2,430	120	4.9	2,550	0
대구	2,420	130	5.3	2,550	0
인천	2,650	100	3.8	2,750	0
광주	2,960	0	–	2,960	0
대전	2,260	100	4.4	2,360	0
울산	2,500	0	–	2,500	0
세종	2,467	153	6.2	2,620	17
경기	2,650	190	7.2	2,840	0
강원	3,130	70	2.2	3,200	0
충북	2,617	–	–	2,617	0
충남	2,000	460	23	2,460	0
전북	2,550	200	7.84	2,750	학교별 탄력적 사용
전남	2,714	667	24.6	3,381	0
경북	2,796	430	15.4	3,226	400
경남	2,551	0	–	2,551	0
제주 (사립)	2,940	330	11.2	3,270	20
평균	2,625	174	6.8	2,799	

출처: 화성저널(2022. 08. 05.). 안민석 의원, 학교급식 단가 전국 천차만별 ... 단가 인상 필요 (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40).

유치원 급식 경비 지원은 유아교육법(제24조 무상교육)과 학교급식법(제8조 경비부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비, 급식시설·설비비, 급식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보건복지부 추가 지원은 없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수보육시책으로 추진하여 지원한다.

〈표 Ⅳ-2-1〉 2022년 어린이집 시 · 도 급 · 간식비 지원 현황

시도	대상	규모(명)	주기	기간/횟수	단가(천원)	보조율(%)	세부 지원기준
서울	영유아	182,922	일	250회	0.19–0.497	도비 50%, 시군비 50%	
부산							
대구	어린이집 재원아동	45,135	월	12회	7	시도보조율 100%	급식품질 개선비 지원
인천	영아반 (0~2세)	58,902	일	250회	0.455–0.755		
광주							무상보육
대전	어린이집 전 시설	40,000	일	250회	0.3–0.6	사비 80%, 구비 20%	무상급식운영 · 취사인력 인건비지원금 포함
울산	어린이집	27,328	일	250회	0.3		
세종	전체 어린이집	15,248	일	250회	0.6		직장어린이집 제외
경기	영유아	350,117	일	250회	0.37		공공 지원 금액
강원							
충북							
충남	어린이집 영유아	53,630	일	250회	0.3	도비 30%, 시군비 70%	
전북	전체 어린이집	38,978	월	12회	5~7	도비 30%, 시군비 70%	직장어린이집 제외
전남	어린이집	36,259	일	250회	0.98	도비 25%, 시군비 75%	친환경농산물 (한끼당 지원)
경북	어린이집 이용아동	51,000	월	12회	10	도비 30%, 시군비 70%	아동 1인당
경남							
제주	전체 어린이집	22,038	일	250회	0.5		영유아간식비 /월 1만원
	전체 어린이집	22,038	일	250회	0.35	도비 100%	친환경 급식비 지원

출처: 2022 시 · 도 및 시 · 군 · 구 특수보육시책조사 자료 및 각 지방자치단체 2022 보육사업 시행계획
* 2022년 상반기 정리된 자료로 이 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유치원의 급식 관련 경비 부담 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다.

〈표 Ⅳ-2-2〉 유치원 급식 경비 구성 및 부담 주체

급식경비		부담주체
식품비		ㅇ보호자 부담 원칙(법 제8조) ㅇ지방자치단체 식품비 지원 가능(법 제8조)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법 제9조)
급식 운영비	급식시설 · 설비의 유지비	ㅇ학교 설립 · 경영자 부담 원칙(법 제8조) ㅇ보호자가 일부 부담 가능(법 제8조)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법 제9조) ㅇ학교 설립 · 경영자는 보호자 부담 경감 노력(영 제9조)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급식시설 · 설비비		ㅇ학교 설립 ·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법 제8조)

출처: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시도교육청은 개별 지원 계획에 따라 식품비 및 친환경 급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교육청의 '2022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2-3〉 2022 서울교육청 친환경 유치원 급식 추진

1) 지원기간: 2022. 3. 1. ~ 12. 31.

2)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 전체

3) 지원범위: 학기 중 수업일의 점심 1식(간식 및 방학 중 급식은 지원 제외)

※ 우유 단가는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식단 구성 시 포함 가능

4) 지원일수: 정규 수업일의 급식 운영일수(편성된 예산 범위 내)

※ 친환경 유치원급식비 연간 소요액 현황(원아수, 수업일수 등)을 조사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초과 시 '22년도 최대 지원일수 결정

☞ 수업일수가 많은 유치원 순으로 지원일수를 조정하되, 최대 지원일수 초과 시 유아학비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고 학부모 추가 부담 금지 원칙

5)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비율: 전체 농산물 구입물량 대비 40% 이상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6) 2022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비 지원 단가

(단위: 원)

급식인원수 (원아수+급식교직원수)	지원단가							합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급식 보조인력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급식 보조인력		
100명 미만	3,190	159	540	–	1,051	646	350	3,889	5,396
100명~149명	2,990	159	540	359	1,051	646	350	3,689	5,555
150명 이상	2,850	159	540	359	1,051	646	350	3,549	5,415

☞ 원아 수와 급식 교직원 수를 합산한 급식인원에 따라 구간을 적용하며, 예산은 원아 수 기준으로 지원

☞ 단, 영양교사 인건비 지원은 매년 10월 정보공시 원아 수 기준으로 함(교직원 수 미포함)

☞ 초등학교 공동조리 공·사립 유치원 식품비는 초등학교(주조리교) 단가 이하 적용

☞ 공동조리 사립 유치원 인건비는 급식보조인력 단가(350원) 적용

7) 재원분담: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급식소요예산 총액 기준 실제 분담 비율 : 교육청 53%, 서울시 28%, 자치구 19%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인력 지원

보육사업안내(202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 시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 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리원(조리사)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1인을 두며, 영유아 수가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해야 한다.

※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해야 함

2021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영양사는 1,040명, 조리원은 29,575명이다. 배치기준을 고려한다 해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수로, 부족한 인력은 조리사 자격이 없는 조리원 또는 원장, 보육교사 등이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1〉 급식 조리 담당자

(단위: %, 개소)

구분	조리사 자격소지 조리원	조리사 자격없는 조리원	원장	보육교사	영양사	영유아의 보호자	기타	계(수)
전체	50.3	34.4	13.2	0.1	0.1	–	1.9	100.0(3,30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94.7	4.8	0.3	0.3	–	–	–	100.0(508)
사회복지법인	95.5	4.5	–	–	–	–	–	100.0(127)
법인 · 단체등	94.0	5.0	0.5	–	–	–	0.5	100.0(63)
민간	62.3	27.4	8.8	–	0.1	0.1	1.3	100.0(1,071)
가정	15.3	57.0	24.1	0.1	0.1	–	3.4	100.0(1,409)
직장	95.2	3.6	0.5	–	0.7	–	–	100.0(121)
X^2(df)	1430.5(30)***							
2018년 조사	43.3	30.2	25.3	0.4	0.1	0.1	0.7	100.0(3,400)
2015년 조사	52.1	20.0	26.5	0.6	0.2	–	0.7	100.0(4,046)

*** $\rho < .001$.

출처: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 조사 보고 –.

조리사 자격을 소지한 조리원이 담당하는 비율은 2018년 조사보다는 증가하였지만, 2015년보다는 다소 줄었다. 조리사 자격 없는 조리원이 담당하는 비율은 증가추세이며,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어린이집은 조리사 자격을 소지한 조리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95% 내외로 높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조리사 자격없는 조리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27.4%, 57.0%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24.1%로 제일 높았다(보건복지부, 2021b).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을 위해서는 영양관리와 식단 및 조리를 담당할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충분한 인력 배치가 되지 않고 있음.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경우, 50명 당 1명의 조리사를 배치하나 어린이집은 40~80명 당 조리사 1명을 의무로 하고 있어 급식대상 증가 시 어린이집 조리사의 업무 과중이 야기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로 검토하여 식수 인원에 맞도록 적절한 배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Ⅳ-3-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단위: 개소, 명, %)

	기관 수	영양사 수	조리사 수
어린이집	43,770(100.0)	848(3.1)	26,710(96.9)
국공립	2,332(5.3)	105(12.4)	3,014(11.3)
사회복지법인	1,439(3.3)	105(12.4)	1,928(7.2)
법인 · 단체등	868(2.0)	44(5.2)	971(3.6)
민간	14,751(33.7)	475(56.0)	12,633(47.3)
가정	23,632(54.0)	6(0.7)	7,169(26.8)
직장	619(1.4)	113(13.3)	908(3.4)
유치원	8,562(100.0)	3,024(35.3)	3,937(46.0)
국립	3(0.0)	1(33.3)	1(33.3)
공립단설	192(2.2)	124(64.6)	98(51.0)
공립병설	4,324(50.5)	281(6.5)	283(6.5)
사립	4,043(47.2)	2,618(64.8)	3,555(87.9)

주: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자료가 모두 있는 2013년 자료를 사용함.
2) 어린이집의 통계에는 부모협동 129개소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1)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2) 교육부(2013). 유치원 급식 실시 현황, 교육부 내부자료.
3) 도남희(2018). 안전한 급 · 간식 제공을 위해 법적 · 제도적 기반이 우선이다. 육아정책Brief, 64. 육아정책연구소. 재인용.

Ⅳ. 어린이집 급식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안

1.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법적 근거 마련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초·중·고·특수학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확대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위해 식품비, 급식시설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에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동등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지원의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도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의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급·간식의 차별이 없도록 중앙차원에서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어린이집 급·간식비 적정 수준 확보와 제고

어린이집 급·간식 단가는 199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보육아동급식비 기준이 1,745원으로 명시된 이후, 2009년 3~5세 유아 급·간식 단가를 2,000원으로, 2020년 0~2세 1,900원, 3~5세 2,5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현행 어린이집 급식단가는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영유아 발달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조막래·김소라, 2016).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급식단가는 현재 수준으로 바꾸는데도 영아는 25년, 유아는 11년이 걸렸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급·간식 단가의 비현실성을 보완하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급·간식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단가, 지원횟수, 세부지원기준 등이 상이해서 어린이집 내 급·간식 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재 급·간식 단가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물가상승률과 친환경 급·간식 제공에 대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급·간식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현재 단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후 필요하다면 급·간식비 산정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도남희·김진미, 2014).

또한 급·간식비 산정 시 보육교직원의 급·간식비도 함께 포함되어 산정해야 한다. 현재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정원만을 고려하여 급·간식비가 산출되고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 내에서 급·간식비 지출은 보육교직원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기본생활습관 역시 어린이집에서 지도해야 할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식생활 지도가 이루어지는 급·간식 시간에 보육교직원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제공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으로 보육교직원까지 포함시키려니 온전히 영유아에게 가야 할 급·간식비의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다. 이에 보육교직원의 급·간식비 지출까지 포함한 비용 산출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도남희·김진미, 2014).

지난 2021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유치원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4)]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지원하여 별도의 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어린이집도 무상급식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유치원의 급식단가에는 식품비 외에 관리비,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식품비만 포함한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와는 비교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연합뉴스(2021.05.04).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어린이집도 포함" (https://www. yna.co.kr/view/AKR20210504073852004).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한 교육과정 이행을 위해 동등한 금액의 누리과정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어린이집만 무상급식 비용이 보육료 안에 포함되고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동일한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도 본인의 교육활동비를 쪼개서 제공되는 무상급식이 아닌, 진정한 무상급식 그것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란 것이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어린이집 급·간식 환경 개선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보육현장에 묻는다면 대부분 조리원(조리사)라고 대답할 것이다. 공통의 식단에 근거하더라도 조리사의 개인 경력, 숙련도에 따라 급·간식의 질이 좌우되며,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업무를 병행하거나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도남희·김진미, 2014).

이러한 조리사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집 조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 지원, 친환경 급·간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면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 도입이 확장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조리사는 1일 1회 급식과 2회 간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급·간식을 준비하는 전 작업과정을 생각하면 상당한 업무량이고 높은 노동강도이다. 그럼에도 조리사는 교사와는 달리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처우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교육이나 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업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은 기관에 머무는 영유아들의 급·간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반 시설·설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설비가 가정의 조리실과 유사한 곳이 많으며 단체급식을 제공하기에 미흡한 기관도 아직 남아있다. 실제로 조리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있으나 조리실 면적 기준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협소한 조리실에 대한 확장이나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이 있다. 이에 어린이집 전체 면적 및 보육실 수에 준하여 조리실 및 기본 설비의 표준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도남희·김진미, 2014).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24.1%로 높게 나타나며, 취사부 지원과 같은 조리인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은 조리실 규모를 영아 인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도남희·김진미, 2014).

V. 마치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관에 보내면서 바라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쾌적한 보육환경,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건강한 식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홍보하는 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말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다. 이제는 그 보편적 교육복지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도 포함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니던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받는 진정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하루빨리 시행되길 기대한다.

[출처]

곽동경·류은순·이혜상·류경·최성경·홍완수·장미라·문혜경·장혜자·최은희·이경은·최정화·이나영(2019). 단체급식의 이해. 신광출판사, 서울, pp18.

광주광역시교육청(2022). 2022년 유치원급식 기본계획(안).

교육부(2017).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교육부(2022). 2021 교육통계연보.

도남희(2018). 안전한 급·간식 제공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우선이다. 육아정책Brief, 64.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김진미(2014). 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박상은(2021). 유치원 적정 급식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 A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30(3), pp. 51–72.

박진아·유해미·최효미·김동훈·김태우·위세아·김송이·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육아정책연구소.

배정숙·이경은(2019).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의 점심 급식을 통한 영양 섭취 평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6), p. 707–718.

보건복지부(2021a). 2021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 조사 보고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2022학년도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연합뉴스(2021.05.04).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어린이집도 포함”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073852004).

장은미(2021). 급간식비 별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연구,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 39.

조막래·김소라(2016).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급식단가 산정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소비자원(2021). 2021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화성저널(2022.08.05.). 안민석 의원, 학교급식 단가 전국 천차만별 ... 단가 인상 필요(http://www.hs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40).

홍완수·문혜경·이경은·최정화·이선영·남상명·박신정(2021). 유치원급식 운영·위생관리 안내서 개발 결과보고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Ⅰ

토 론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다양한 조건중에서 필수 조건일텐데, 어린이가 엄마품에서부터 영/유아기를 거쳐 초/중/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엇을 먹고 자라나는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간 진행해왔던 학교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이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학교 과일간식지원사업등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준비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유아에 대한 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미약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먹거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를 단순히 유통/공급한다는 개념이 아닌, 생산과 소비를 조직화하는 방안이 마련/실행되어야 합니다. 생산자는 생산했는데 팔 곳이 없다하고, 소비자는 살 곳이 없다하는데, 생산과 소비가 결합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소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인식제고가 함께 해야 합니다.

당면한 큰 화두인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소비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쌀 현물공급부터 시작합시다.

일부 지역에선 친환경쌀 및 감자,양파등을 현물로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는데, 우선 전국적으로 친환경쌀부터 현물공급을 시작합시다.

여러 법/제도, 행/재정적 문제가 있다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실행합시다.

토론과 논의도 실천이 함께 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도, 농민의 희망도 만들어 질 것입니다.

Ⅱ
토 론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손성훈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장)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1.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이용률

시설/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1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국공립어린이집	43	28.1	56	29.9	75	33.8	75	44.1
민간어린이집	24	15.7	36	19.1	42	18.9	25	14.8
가정어린이집	86	56.2	96	51	105	47.3	70	41.1
계	153	100	188	100	222	100	170	100

*단위 :시설수(개), 비율(%), 이외 기타로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2.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부문/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식재료 및 급식만족도	4.44	4.47	4.20	4.33	4.28	–
공급 및 서비스만족도	4.54	4.65	4.40	4.46	4.43	–
공공급식에 관한 인식	4.76	4.8	4.49	4.57	4.48	–
총점	4.53	4.6	4.34	4.43	4.37	–

*5점 만점 기준.

3.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주요 의견

• 원장(관계자)

장점	착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구매해서 만족함
	활동지와 제철 식재료 공급을 통한 친환경 식재료 친밀감 상승
	친환경 재배 농작물과 생산환경을 보고 신뢰감 상승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친환경농산물 이용 사례 다수

개선점	발주시스템의 개선 필요
	식단표 식재료가 없어 다른 급식시스템을 이용하는 불편

•학부모

장점	어린이집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편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대한 안내문을 통한 교육 중심
	친환경농산물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음(그렇다/매우그렇다)
개선점	어린이집 식생활 교육 부족 의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제공 요청

4.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추진방향

① 친환경 식재료 비율의 연차적 상승

② 직거래 방식 유통비용 절감

③ 도농 간 상생적 균형발전(계약체계)

④ 교육홍보 및 도농교류 활성화

4-1. 서울시 공공급식센터 친환경농산물 공급현황(2022.01~10월)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목표치

: 1년차(50%), 2년차(60%), 3년차 이상(70%)

번호(**센터)	친환경농산물 비율(%) – 공급액 기준
1	74
2	65
3	84
4	100
5	61
6	98
7	91
8	87
9	100
10	86
11	90
12	94
13	60
합계	84

5.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과제

1) 친환경 식재료 품목 다양성 부족(가공품 포함)
⇨ 공공급식 1(산지):1(지자체) 방식 외 다양한 공적조달 체계

2) 친환경 식재료 조달 방식(공공급식)
⇨ 서울 13개구만 시행 중. 25개구(권역별)먹거리통합지원센터

3)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
⇨ 다양한 방식의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조리원 식생활 역량강화 교육

4) 적정 급간식비 및 식재료 품질 만족도 향상 노력
⇨ 직거래 공급가격. 친환경식재료비율 목표치. 학교급식 품질 기준

5) 가정 어린이집(소규모 시설) 지원 공적조달 체계
⇨ 공급 소외시설. 안정적 친환경공급체계. 조달 편의성 제공

6) 산지센터 및 민간위수탁 기관별 식재료 차이
⇨ 지자체 및 산지센터 협의회 구성. 친환경 공급 정책 추진

7) 산지별 또는 먹거리 통합센터 작부체계 및 생산자조직화
⇨ 전국 단위 조달 체계(관내 및 관외)로 우수 식재료 공급

8) 친환경 농업 현장 중심의 도농교류 활성화
⇨ 친환경 재배 방식과 생산 농민과의 교류의 장 정기 추진

9) 키즈 친환경 먹거리 엑스포(가칭)
⇨ 이용자 대상 농산물 체험 꾸러미, 식생활교육, 안전 먹거리

10) 발주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증대
⇨ 7일전에서 3일전 주문체계로 생산 공급방식 개선

Ⅲ
토 론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전환을 위한 제안

김재철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전환을 위한 제안

1.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실 급식 논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은 잊을만하면 다시 터지는 단골 메뉴가 되었다. 정부는 그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와 설치 의무화, 유치원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물론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이 긍정적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저출산이라고 하는 환경의 근본적 변화, 안정적인 조리인력 확보의 어려움, 공공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식재료 공급체계 등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의 많은 수가 이제 개별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급식에서 손을 떼고 지자체가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단체급식은 선택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체급식에서 개인의 선택사항은 없다. 일부 메뉴에서는 가능하지만 재료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더욱 불가능하다.

'제가 먹을 제육 볶음은 동물복지인증 돼지고기와 유기농대파, 전통식품인증 고추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 좋든 싫든 급식실에서 선택한 재료가 제공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제정(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을 어느 수준으로 운영하는가는 그 사회가 그 대상인 영·유아와 어린이·청소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측정하는 잣대가 된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개별 가정이 책임지던 아이들의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부모들의 편리에만 있지 않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높은 수준의 단체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고 농업과 농민,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친환경'과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통용된다. 그만큼 학교급식 현장에서 다루는 식재료의 수준과 질은 지난 1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식재료의 질과 관련한 논란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위탁 급식을 직영 급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에서의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한데에 그 의미가 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를 통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 공립과 민간의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민간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며 '학교직영급식'의 엄격한 관리와 책임과는 상대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운영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은 '급식시장'의 출현에 따른 공공조달체계의 구축에 있다.

학부모들의 높아진 급식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국내산 농산물 소비등을 넘어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로컬푸드', 'non-GMO''무항생제'등 관련 인증에 기반한 급식시장이 형성되었고 현재 각급 광역·기초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식재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에 비해 기관 숫자는 월등히 많은 상황으로 인해 물류운영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체계에서도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육부서와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농업 부서간의 칸막이 등도 관련 시스템의 구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벌어진 무상급식 관련한 논쟁은 학부모,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공짜밥'과 '시민의 권리로서의 무상급식'이라는 논쟁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을 높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급식소위원회 등 학부모 참여의 장이 열리면서 이는 모든 지자체들의 급식 정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학부모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다 어린이집들 규모가 영세화 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들의 비중이 높은 점들은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의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학부모들의 요구가 강하게 작동되지 못한는 요인으로 된다.

3. 대안

• 학교급식 조달체계를 활용한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부분 지역이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학교급식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도 식재료의 범위 등을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연령, 규모, 담당 부서 등 모든 게 상이하지만 같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단일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열어두고 서로 간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가는 방법도 필요하다.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나타나는 일부 민간업체들의 소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급간식비는 동일한데 무조건 좋은 식재료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뒤따르고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일반 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간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좋은 예이다. 어린이집의 행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미 보육료를 통해 급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기에 추가로 투입될 예산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의 책임성을 높힐 다양한 시도가 필요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국 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재원 인원 기준 2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50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정어린이집은 20명 미만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 이런 소규모 급식시설이 전국적으로 3만곳이 넘으며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4만개소 넘는 급식시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80%에 달하는 민간의 비중은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도시지역에서조차 조리인력을 구하기 힘든 인력난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조리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급식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학교급식법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외주업체의 범람 등을 막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의 예외 규정 등을 두거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한 사업들을 통해 개별 어린이집 단위가 아닌 지역별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참여의 장을 열고 관련 급식정책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Ⅳ
토 론

어린이집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넘어 식재료의 질을 높여야 할 때!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서울경기 이사장)

어린이집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넘어 식재료의 질을 높여야 할 때!

1. 어린이집 급식 관련 이슈

어린이집 급식 관련 이슈는 ①안전·위생관리, ②영양관리, ③식재료의 질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급식 사고의 영향 때문인지 '안전·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관리·감독 및 처벌 제도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중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어린이집 부실급식 논란으로 보육료에 포함되는 '급식비' 인상 논의가 있어 왔고 가뭄에 콩나는 방식으로 매우 느린 속도(영아는 25년, 유아는 11년)로 개선이 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자체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그 사정이 다르다. 두 분의 발제문을 통해 지자체별로, 기관 유형별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1일 급식단가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발제문 '〈표Ⅳ-2-1〉 2022년 어린이집 시·도 급·간식비 지원현황'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 이외에 특수보육시책으로 지원하는 시·도별 급·간식비 금액이 1회당 190원에서 980원까지 5배 이상 차이가 있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은 지원사업이 없다.(학교급식의 경우도 광역지자체마다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에 편차가 있다.)

내 고향 춘천이 있는 강원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금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좀 아팠다.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는데 강원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남도에 태어난 어린이에 비해 천원 가까이 낮은 예산으로 꾸린 어린이집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참고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17위, 27.6%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등 미래세대 급식업무를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

두 분의 발제문에서 제시된 정책적 제안은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어린이집 급식 관련 예산 지원 부문에서 ①급식비 현실화, ②보육교사 급식비 별도 지원, ③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제안했으며 어린이집 급식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한 ④조리원 전문성 제고, ⑤조리 시설과 설비 지원, ⑥친환경 식재료 공적 조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학교와 유치원은 되는데 왜 어린이집은 왜 안 될까? 보편적 교육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급식이 이뤄져야 할까? '보육'과 '교육'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일까?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물론 '예산'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은 현재의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이해관계의 복잡성 때문인 듯하다. 전자는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될 일이고, 후자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및 정책 기반 마련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집 급식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만 논의했지 그래서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누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인가?

마치며...

2022년 9월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466,658명이며 이중 19세 이하 인구는 8,287,424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에 불과하다. 통계청에서는 지난 9월에 2070년 대한민국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4%가 될 것이고, 노인부양 부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 10월에 발표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자료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6년에 0.69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멸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합계출산율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이다. 아이 한명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상황,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멸종할 수도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어른, 기성세대'로 살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는 공공급식의 틀 속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를 만들었는데 어린이집은 왜 안될까? 전국 140여개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푸드플랜, 지역먹거리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왜 여전히 어린이집은 공공급식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까? 이제는 답을 찾을 때이다. 어린이집급식 개선의 필요성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V
토 론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도입과 「공공급식통합 플랫폼」의 역할

임재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공급식처장)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도입과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역할

급식은 국민의 상당수가 생애주기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 우리 삶에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기에서부터, 학교, 군대, 기업, 요양시설까지 급식을 통해 기본적인 식생활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먹거리 복지의 실현, 도·농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중 학교급식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아동구호를 위한 해외원조기관의 농산물 원조로 초등학교 빵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학교급식법 제·개정, 산업화 등에 따라 빠르게 성장해, 현재는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립(전국 128개소*)하고 다수의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이른바「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계기로 영양교사 배치, 학교 재정망(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고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 세부항목별 예산을 분리하는 등 급식시스템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실급식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식재료 단가를 파악할 수 없고 지역별·운영주체별 지원방식과 금액 편차가 커 표준화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스템의 도입과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를 통한 단순 보조금 형태의 금액 지원은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집행·정산 등 부가적인 행정업무는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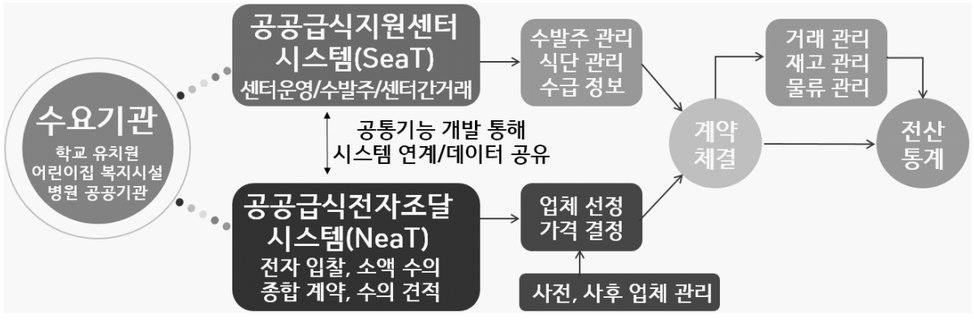
이렇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친환경 급식지원사업」등 많은 부분에서, 학교급식의 사례를 참고하여 급식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aT농수산식품거래소」는 올해 9월「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개설하였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기존「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에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고도화한 국내 유일의 식재료 전문 조달시스템이다. 학교급식의 체계를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확대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당 지역의 수요기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동 플랫폼의 특징이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수요기관과 공급처는 온라인상에서 식단 편성, 식재료 거래,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식재료 안전성 관리 등 공공급식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체계도>



- 공공급식지원센터시스템(SeaT) :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거래운영을 지원(Support)하는 SIMS가 공공급식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NeaT) : 투명하고 안전하게 급식 식재료를 도달 중개하는 eaT가 차세대(Next)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기관이「급식지원센터」에서 원하는 식재료를 쉽게 주문할 수 있는 '간편거래 기능'과 '식단관리프로그램', '센터간 거래' 등을 신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역내 수급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급사 관리와 공정한 거래 플랫폼 제공으로 안심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고 농가 관리부터 납품·정산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전국 80%의 학교와, 경북·경남·제주의 34개「급식지원센터」가「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식재료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공급이 확대된다면 영유아 급식의 체질 개선과 함께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발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관련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16년부터「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어린이집 시범운영('19~'20)을 거쳐, '21년 도내 어린이집 전면도입, '22년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등 학교 외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도입단계에서는 거부감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스템 운영이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최근 사용이 편리한 거래기능이 추가되어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를 믿고 주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식생활 수준 향상과 정부의 급식 및 먹거리 복지의 확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공급하는「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건강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면 어린이집 급식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지역 내「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 단위의 '공공급식 정보 허브(HUB)' 역할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보장 강화 방안 연구(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2)

** 2021년 친환경 농식품산업 현황조사 연구용역(농림축산식품부, 2022)

참고1 전국 시도별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21)

구분	급식지원센터 운영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식 기관						
	지자체 (광역)	급식지원 센터	교육		복지 (지역아동 센터 등)	보건 (국공립병 원 등)	안녕·질서 (군대, 교정 시설)	공공행정 (행정기관)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서울특별시	14(1)	11	14	1	13	0	0	0	
부산광역시	3	3	1	3	0	0	0	0	
대구광역시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1(1)	1	0	0	0	0	0	0	
광주광역시	4	4	3	4	0	0	0	0	
대전광역시	1(1)	1	0	1	0	0	0	0	
울산광역시	5	2	0	2	0	0	0	0	
세종자치시	1(1)	1	1	1	0	0	0	1	
경기도	16(1)	13	9	13	0	0	0	0	
강원도	5	5	0	5	0	0	1	2	
충청북도	2	2	0	2	0	0	0	0	
충청남도	15(1)	14	13	13	2	0	0	7	대학/ 수련원
전라북도	14	14	14	14	5	0	2	3	수련원
전라남도	7	7	6	7	3	1	1	1	
경상북도	23(1)	45(농/축)	28	44	0	2	0	1	관광소
경상남도	4	4	4	4	0	0	0	0	
제주자치도	1(1)	1	1	1	0	0	0	0	
전국	116(8)	128	94 (73.4%)	115 (89.8%)	23 (18.0%)	3 (2.3%)	4 (3.1%)	15 (11.7%)	

*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보장 강화 방안 연구(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2)

참고2 지자체별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현황(`20)

시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예산 (백만원)	비고
			초	중	고	특		
서울	광역+기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	△	○	65,725	고 2~3 대상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		2,344	고 1 차액 지원
	기초	친환경 쌀 차액지원사업	△	△	△	△	2,548	
부산	광역+기초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				10,324	
	기초	친환경 식품비 지원사업 등	△	△	△	△	2,568	
대구	광역+기초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	△	△		3,490	중 · 고 일부지원
인천	광역+기초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	○	○	○	2,170	차액 지원(쌀)
광주	광역+기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	○	○	3,593	1식당 300원 지원
대전	광역+기초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	○	○	○	3,167	1식 300원 지원 (고) 220원 지원
울산	광역+기초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	○		2,100	지역우수농산물 우선구매 차액 지원
경기	광역+기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	○	○	2,700	
	기초	지역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등	△	△	△	△	11,876	
강원	광역+기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	○		36,422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	○	○	○	1,431	
	기초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	○	○	△	856	
충북	기초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	○	△	△	12,550	
충남	광역+기초	친환경 급식 차액지원	○	○	○	○	25,167	축산물 포함
	기초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	△	○	△	1,391	
전북	광역+기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	○	○	7,753	1식 245~327원 지원
	기초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	○	○	○	1,373	
전남	광역+기초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7,109	
	기초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	○	○	○	77	
경북	광역+기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	○	○	23,578	1인당 평균 683원
	기초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	△	△		1,536	
경남	광역+기초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	○	○	○	1,970	(유) 900원/kg (무) 700원/kg
	기초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사업 등	○	○	○	○	3,912	
제주	광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	○	○	3,993	
합 계							251,723	

** 2021년 친환경 농식품산업 현황조사 연구용역(농림축산식품부, 2022)

참고3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거래현황(`22.10월)

총 괄

(단위 : 억원, 건, 개)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10
거래실적	12,897	18,439	20,489	26,446	26,556	26,919	28,230	18,263	28,109	29,667
거래건수	165,968	233,694	260,457	337,088	366,520	377,818	387,427	335,970	398,822	360,198
수요기관	5,154	7,027	7,714	9,568	9,538	9,579	9,653	9,896	10,285	10,464
공급업체	2,902	3,603	4,110	4,581	4,503	4,661	4,844	4,994	4,878	4,780

기타기관 거래실적(`22.10)

(단위 : 개, 천원)

구분	지역	시설수	거래금액(누계)
어린이집	제주	470	1,253,721
지역아동센터	전북	45	37,918
	제주	10	9,876
	소계	55	47,794
사회복지시설	부산	102	9,473,443
	울산	1	102,302
	경남	6	612,933
	소계	109	10,188,678
기타(연수원 등)	–	57	4,456,054

참고4 공공급식지원센터시스템(SeaT) 이용 지역(`22.9월)

광역	이용지역	센터명	운영주체(위탁업체)	취급 품목수	수요기관
경북	경북	경북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경북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1)포항시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 포항축산농협육가공공장	399	학교
	2)영천시	영천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북안농업협동조합, 영천축산농협한우프라자	395	학교
	3)울진군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세광한우전문점, 주식회사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401	학교
	4)영덕군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강구농협하나로마트	395	학교
	5)구미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유통센터, 고아농협하나로마트	394	학교
	6)청도군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청도축산농협 축산물프라자, 농업회사법인(주)아임푸드	395	학교
	7)칠곡군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칠곡양돈영농조합법인, 한솔영농조합법인	388	학교
	8)상주시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상주농협하나로마트	391	학교
	9)김천시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김천축산업협동조합, 김천농협하나로마트	402	학교
	10)문경시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문경축협남부지소고기한마당, 가은유통	395	학교
	11)영주시	영주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영주축협한우프라자,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395	학교
	12)예천군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예천축산농협하나로마트, 영농조합법인 연자방아친환경쌀	395	학교
	13)안동시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 영농조합법인 나눔과섬김	588	학교
	14)의성군	의성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의성축산업협동조합, 산운농업회사법인㈜	399	학교
	15)군위군	군위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경북친환경영농조합법인	395	학교
	16)고령군	고령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다산지점, 한솔영농조합법인	398	학교
	17)경주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어깨동무 영농조합법인, 경주축산농협 유통사업본부	316	학교
	18)영양군	영양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영양농업협동조합	389	학교
	19)경산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자인농협 하나로마트, 경산축산농협한우전문판매점	395	학교
	20)청송군	청송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395	학교
	21)성주군	성주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주식회사 식원, 한솔영농조합법인	400	학교
	22)봉화군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봉드림,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봉화육가공공장	391	학교

광역	이용지역	센터명	운영주체(위탁업체)	취급 품목수	수요기관
경남	23)김해시	김해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김해시청((주)농협하나로유통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412	학교
	24)남해군	남해군 농업기술 센터	남해군(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398	학교
	25)밀양시	밀양시 농업기술 센터	밀양시(밀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485	학교
	26)창녕군	창녕군 농업기술 센터	창녕군(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곡농협 대행	1,951	학교
	27)거제시	거제시 농업기술 센터	거제시(대민푸드)	30	공공기관
	28)고성군	고성군 농업기술 센터	고성군(고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2년 7월~	1,800	학교
울산	29)울산시	울산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울산시 북구청(농소농협하나로마트)	277	학교
	30)울산시	울산동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울산시 동구청(농소농협하나로마트)	276	학교
	31)울산시	울산남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울산시 남구청(울산원예농협 푸드급식지원센터)	208	학교
	32)울산시	울산중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울산시 중구청(울산원예농협 푸드급식지원센터)	67	학교
	33)울산시	울산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울산시 울주군청(울산원예농협 푸드급식지원센터)	72	학교
제주	34)제주도	제주도 학교급식 지원센터	제주도청(참맑은영농, 느영나영영농, 생드르영농)	253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터

Ⅵ

토 론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태준
(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memo

Ⅶ
발 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조재성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서기관)

memo

memo

memo